

<Globalization, Consumerism and Sustainability in the East-Asian Context>

1950년에 Student YWCA에 가담한 이후 5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다양한 형태의 YWCA 활동을 하고 있는 Y가족의 일원으로서 이번 Asia Alliance of YMCAs의 <Globalization, Consumerism and Sustainability>를 주제로 하는 Workshop에 참여하신 4개 국가의 YMCA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오늘 여기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은 동아시아의 대만, 홍콩, 일본 그리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가까운 이웃들로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는 유교라는 같은 종교적 배경과 한자문화권에 속해있어서 우리의 사고와 생활양식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도 비슷하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사고구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서 언어의 불편과 사고방식의 차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들끼리의 사전회의를 필요로 했던 기억도 있다.

다행한 것은 이 Workshop에서는 영어의 사용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동과 서가 함께 하는 회의에서 Sustainable Consumption 문제의 합의도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남북간의 극심한 견해차이가 그 간격을 좁히기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라기는 앞으로 한 주간의 Workshop의 결과가 거센 세계화추세에 따라 절약이 미덕이었던 동아시아 지역의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든 서구의 다소비풍조를 지속가능한 소비풍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1. 지금은 세기말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서기 2000년은 이른바 또 하나의 Millenium이 시작되는 해로서 인류에게는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오늘을 살고있는 우리는 두 세기를 걸쳐 사는 세대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열 것인가 하는 과제가 부과되어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인류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의 밀레니엄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자연착취, 서구백인의 제삼세계 억압, 남성의 여성억압, 국가권력의 개인억압 등의 상처로 얼룩진 시대였다.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위기의 징후들은 성장위주의 서구적 <근대성>의 후유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위기론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온 세계가 지금 세기말의 위기진단과 근대와 세기말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모색을 불확실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 중에서도 지구환경문제에 있어 보호자원을 넘어서 생명과 직결시킨 생태계위기 극복논의가 주목할만하다.

서구문명붕괴의 대안으로 노장철학 등 동양사상을 내세우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자연생태계를 개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서구적인 사고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점을 중시한다.

세계는 새로운 100년을 ①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하여 국경이 없는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세기로 ②국가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화와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단체 등의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③20세기가 경제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늘의 역사는 낡은 세계질서가 한계에 봉착해 붕괴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는 새로운 시점에 처해있다. 역사의 전환점인 21세기에 인류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구환경보전>이며 지구환경보전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지속가능한 소비>이다.

II. 지구환경시대의 도래

환경문제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고갈과 자정능력의 마비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과도한 인간활동이 지구능력의 유한성의 정도를 넘고 있어서 순환기능을 파괴한 것을 의미한다.

그 일차적인 원인은 지난 200년간의 인류의 잘못된 생산과 소비양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인구증가('98-7-11 세계인구의 날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의 발표: 99년 6월 16일경에 세계인구 60억이 될 것으로. 현재의 인구 58억. 그중 아시아 35억) 도시화 (2010년이면 세계인구 50% 도시에 거주) 그리고 빈부의 격심한 격차문제 등이 지구파괴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하나는 60~70년대에 문제시되고 있던 <산업공해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근래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이다. 전자는 국지적인 문제 또는 특정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시정이 용이한 일과성인 현상이다. 그에 비해 후자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이고 현세대뿐만이 아닌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며 인류의 존속을 가름하는 문제라는데 그 차이가 있다.

산업공해의 경우는 가해자=기업, 피해자=지역주민 등의 도식이 ^{diagram} 분명하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의 경우 모든 사람이 가해자이며 피해자인 동시에 관리자이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 극복에는 다양한 대처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세대인의 생산과 소비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원인이 분별없는 이윤추구와 소비미덕에 터잡은 사회풍조와 인간의 끝없는 편이추구의 욕망과 나만 이면 된다는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80%의 지구자원을 20%의 세계인구가 쓰고 있는 다소비계층의 생활수준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는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소비 국가에 속해있다. ('92년도의 월드워치연구소 구분: 빈곤계층 11억 개인소득 연간 700불 이하, 중간소득계층 33억 연간 7500불 이하, 소비계층 11억 연간 7500불 이상)

지역적으로는 물문제, 공기문제, 먹거리문제 등과 지구적으로는 기후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우 등이 경고되고 있다. 지구환경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지구환경시대란 환경문제가 국경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도 지구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문제는 21세기에 아시아의 식량, 에너지, 물 파동이 예고되어 있다는 점이다. 식량의 경우 미국 월드워치 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에 의하면 세계 최대인구를 가진 중국이 식량수입국으로 변모하는 경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에너지의 경우 지난해 말 발생한 아시아 경제위기로 경제성장이 당분간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2010년 동아시아 에너지 수요가 전세계 수요의 28%를 차지하여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 자급도가 낮은 동아시아의 경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경제위기마저 겪고 있어서 부족현상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의 경우 21세기에는 물이 석유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될 것으로 유엔은 경고하고 있다. 유엔이 지난해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인류의 65% 이상이 <물공급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 부족 현상의 이유는 한정된 수자원에 비해 물 소비량이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무분별한 삼림파괴를 주범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의 원시림이 20세기에 50% 이상 줄었으며 FAO는 일본, 한국, 대만에서도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파괴에 따른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우리의 생산과 소비양식의 획기적인 변혁 없이 그 해결은 불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소비>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동아시아지역의 YMCA들이 앞으로 프로그램 중점으로 채택해야 하는 과제들은 바로 이런 것이다.

III.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운동의 필요성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유엔의 <의제 21-Agenda 21>의 제4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산과 소비양식이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97년 6월 23일~27일에 뉴욕에서 개최된 <Rio+5>로 불리우는 유엔환경특별총회의 리우회의 이후 5년간의 <의제 21>의 실천성과 평가에서 특히 부진했던 과제로 제4장이 꼽혔다. 실천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의 유엔인간환경회의를 필두로 리우에서의 유엔 환경과개발회의를 비롯한 크고 작은 환경관련회의들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가 하면 CFC사용을 규제하는 빈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을 포함하는 수많은 국제협약과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의제 21>이 만들어지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문제는 개선은 고사하고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지구시민의 환경의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구환경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식과 실천이 연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실천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감내할 의지가 약한데 있다.

언제부터인가 체질화(?)된 풍요함, 편리함, 욕심대로의, 나의 호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돈이 벌리는 것이라면 등등의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일시적인 자극으로 결심했다가도 따라오는 문제들로 혼자서는 지속성 유지가 어렵다. 나 하나쯤 또는 나 혼자 노력으로 되겠냐는 등의 자기과소평가와 무력감은 실천운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인류는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사는 사회인 공동체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소비구조의 구축을 요구한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구시민 개개인 모두가 해야한다. 각자가 환경친화적(Environment - Friendly)인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실천은 혼자서는 힘들다. 함께 하는 운동으로 지역사회의 YMCA들이 전개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연대를 통해 큰 운동으로 발돋움함으로써 새로운 생활문화운동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YMCA들의 노력이 지구사회의 좋은 본보기로 부상하여 지구환경보전이 말로만이 아닌 실천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

IV.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양식 (녹색생활양식)

1994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개최되었던 지속가능소비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브룬트란드(G. H. Brundtland)는 지속가능소비를 위해 5대 과제를 발표한다.

- ①환경기술과 녹색상품의 개발(내구성 제고, 재활용 가능하게 등)
- ②재생불능자원이용의 억제(화석연료 등)
- ③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 확립
- ④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수립(대중교통수단 확대)
- ⑤쓰레기 발생량의 감축(소비수준 감축, 재사용, 도서관 이용 등)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생산과 소비양태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소비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한마디로 덜 쓰고 덜 버리는 생활양식이다.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방법은 계속 개발되고 전파되어야 한다.

그 일반적인 형태의 예를 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Eco Check)을 하는 생활이다. 에너지절약, 물질약, 쓰레기감축, 자원재활용 및 재이용, 대중교통수단 활용, 물질사용 등의 소비억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녹색소비생활은 물건을 구입할 때부터 시작된다. 구입하는 물건에 사용된 자재의 채취과정, 물건의 만들어진 과정, 사용하고 버리기까지의 과정을 따져보며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폐기시에 재자원화가 가능한가, 오염원이 되지 않는가 등을 고려한다. 식품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생산되어 가공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녹색소비자는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많은 나라에서 자선활동을 위한 기금모금을 겸하고 있는 자원재사용을 위한 중고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IMF 경제위기상황에 몰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Thrifty Shop, Flea Market 등의 재사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보는 현상으로서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하는 일을 기피하던 현상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다.

녹색소비자들은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이웃간에 공동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물건의 최종폐기는 분리수거해서 재자원화하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품질이나 외양에는 상관없이 재생제품을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녹색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는 녹색구매 및 소비지침서가 나와있어 베스트셀러가 된지 오래이다.

물질적 소비를 과감하게 삭감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뿐만 아니라 최근 아시아 전역에 불어닥치고 있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소비양식이기도 하여 중시한다.

V. 지속가능한 생산양식 (녹색생산양식)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생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에 등장한 Life Cycle Assesment(LCA) 방법이 생산품의 원자재의 입수로부터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그리고 폐기의 전과정에서 환경친화성을 고려하는 생산양식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생산품의 품질인증제도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의 Green Seal, 독일의 Blue Angel, 일본의 Eco Mark, 한국의 Environmental Mark 등이 그 예이다.

한편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반화되기에 이른 <환경산업>이 21세기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전망되면서 환경을 고려한 신제품의 생산과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가 직면한 근래의 경제불황으로 그 열기가 위축된 것 같이 보이지만 환경산업의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그것은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증거이다.

환경산업은 고도성장기의 <공해방지형 산업>과 유류파동시기의 <자원절약형 산업> 등으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며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두 가지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하나는 환경친화적인 또 하나의 산업은 “Re” 산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새로운 산업이다. <“Re”산업>이란 Repair, Reuse, Recycle, Reduce, Refill, Redesign, Reform, Rebuy 등의 두문자에서 따온 말이다. 생산품의 수명을 최대화하고 자원을 절약하거나 재활용하는 생산양식의 산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90년도 후반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21세기의 기업의 성장조건의 하나는 바로 지속가능한 생산양식에 따르는 제품생산과 기술개발 그리고 기업경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생산은 지속가능 소비자가 견인해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수요자의 가치관과 소비양식의 변화는 공급측의 생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있다.

VI. 지속가능한 소비와 YMCA운동

1997년 9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바있는 세계시민단체의 정상기구인 <CIVICUS>의 제2차 세계대회의 주제는 <Globalization and Civil Society>였다. 이 영역에서의 토론의 세계적 흐름은 21세기를 <시민의 시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지구화시대에 들어서서 국가의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국가를 대신하여 새롭게 부상한 공공조직이 바로 <시민사회>이다. 오늘의 세계의 사회운영체계는 Public Sector로서의 정부, Private Sector로서의 기업 그리고 The Third Sector로서의 Civil Society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자율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이며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 이들 3자간의 Partnership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오늘의 세계에서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만큼 중요하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풍토 조성에는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가 시민운동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민운동 중에서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에큐메니칼 운동, 청년 운동, 회원의 운동, 발란티어 운동, Community Movement 그리고 국제적 운동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시민운동의 효시인 YMCA가 담당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은 지대하다.

한국의 경우 YMCA가 가지고 있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자산은 대단하다. 창설 이래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축적한 업적, 공신력, 도덕성, 조직력, 지도력 그리고 영향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동아시아의 YMCA들도 한국 YMCA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러한 YMCA의 자산을 세계의 인간공동체 회복과 지구환경보전에 투입한다면 동아시아를 출발점으로 Ecological Synthesis를 이루어내는 새로운 Paradigm에의 길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 위기에 와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다. 지금의 환경위기는 지금까지 인간중심적이며 탐욕스럽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양식을 깊이 회개함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이 해방될 수 있는 기회이다. YMCA는 이 기회를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VII.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프로그램의 사례들

①Eco-Shop Movement

서울 YMCA에서는 이 운동을 Green Shop Movement라고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나바다 운동이 갑자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은 물건을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바꾸어쓰고, 다시쓰자는 운동으로서 명칭은 4개의 동사의 두문자로 만들어진 것이다.

옷 은행, 학교교복 물려 입기, 위탁판매, 공동구입, 임대사업, 마을장터, 벼룩시장, 물물 교환(장난감, 문구, 책 등 생활용품 등) 등이 이 운동에 포함된다.

Eco Shop 운동의 본래의 의도는 일단 만들어진 물품은 그 기능이 남아있는 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감축하는 것이다.

서울YMCA에서는 이 운동을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실천운동으로 '97년 중점사업으로 전개한 바 현재 38개소로 확장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서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써 지역마다 재사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운동단체를 제외한 일반 주부단체에서는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있는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한 알뜰살림을 위해 Thrifty Shop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싼 물건이 시장에서 덤핑되고 있고 남이 쓰던 물건을 별로 쓰고싶어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우리나라에 이 운동이 이렇게 확산된 이유는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졌다는 것과 지난 12월에 갑자기 닥쳐온 IMF의 찬바람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1942년 영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점령 하에 있던 Greece를 돕기 위한 Charity Shop으로 시작한 OXFAM운동이 93년 당시 853개로 되면서 중고품상점이 하나의 확실한 상거래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재사용운동이 오늘에 와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양식으로 정착하면서 환경선진국의 하나인 독일에서는 최근 <푸른 내일>을 판다는 환경백화점이 중부도시 만하임에 개점되었다고 한다. 이 백화점은 곳곳에 흩어져있는 중고품 판매를 비롯한 환경관련 판매점들을 창고를 개조한 한 곳에 집합하게 함으로써 활용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Eco-Shop은 필요한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일 뿐만 아니라 환경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며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운동의 센터역할을 한다.

②Food Bank Movement

이 운동은 식품의 생산업자, 가공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측의 잉여식품을 식품을 필요로 하는 시설, 집단, 가정에 공급하는 운동으로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종교단체 그리고 사회단체들의 Volunteer Service에 의해 운영된다.

1970년대 말 미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복지행정이 수많은 빈곤자들의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없는데서 태동된 운동으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Food Bank는 Second Harvest라는 운동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운동으로서 지난 5월 6일 YMCA, YWCA, MBC TV가 공동으로 시작해서 벌써 37개 지방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함께 대두하기 시작한 취약계층 생계문제에 대한 민간차원의 해결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사랑의 먹거리 나누기 운동〉이다.

서울시에서 이 운동을 시작한 동기는 보건복지부와는 다른 환경정책의 하나로서 연구·검토된 것이다. 세계의 도시들이 몸살을 앓게 하고 있는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은 연간 8조원에 이른다. 이 운동은 음식물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복지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적 연대의식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필요한 운동이다.

③Eco-Family Movement

에코가족운동은 가정단위에서 개개인의 생활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생활운동이다. 이것은 도시화과정에서 해체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되살리고 살맛 나는 내 고장 만들기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이웃과 함께 도모하는 지속가능 사회운동이다. 에코가족운동은 UNEP가 지원하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세계적인 실천운동이다.

에코가족운동은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의 실천방법을 연구하고 체험을 통해 익숙해지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을 각 가정 또는 집단에 따라 스스로 찾아서 하는데 있다.

이 운동은 GAP(A Program of Global Action Plan for the Earth)이라고 한다. 6개월간의 일정과정을 수료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UNEP에서는 Global Citizenship을 수여하고 있다.

에코가족운동의 지침서는 이 운동의 한국본부(한국사회교육원 02-744-3964)에 문의하면 복사본을 얻을 수 있거나 세계본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VIII. Globalization and Sustainable Consumption

발제의 맺는 말로서 지구화와 지속가능한 소비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지구화란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사람, 물자,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국제협력과 분업이 정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정치, 문화, 환경 모두가 하나의 지구적인 울타리 내로 동질화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화는 세계가 하나의 단위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다. 통신기술의 발달, 지구적 기업의 활동, 보편문화의 확산 등에 의해 매개된 지구의 시간적, 공간적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이 지구화를 촉진하고 있다.

“지구화 추세 속에서 지구시민의 사고와 행동내용이 우리의 것도, 남의 것도 아닌 그러면서 우리의 것과 남의 것을 합성한 제3의 문화로 병용되고 있다.(조명재 '95)”고 한다.

제3의 문화는 세계 각 지역에 있는 독특하고 분리적이며 비동시적인 삶의 양식들이 지구적으로 연속되고 동시화되는 양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촌 삶의 동시화는 물질, 상품, 정보, 인력, 이미지, 환경적 요소의 급격한 상호이동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의 소비양식에 변화를 가져온 현상은 근검절약 하는 소비에서 다소비미덕의 소비양식으로 빠져들게 한 것이다. 즉 지속불가능한 소비양식으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은 세계를 명실상부하게 단일의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하였으며 지구자본주의의 특징은 상품의 생산으로부터 유통, 판매, 소비, 폐기에 이르는 자본순환의 전체과정이 전지구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동시에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경제활동은 가족, 기업, 지역, 인종, 국가를 지구전체로 연결시키는 조직적 Network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생산으로부터 유통에 이르는 상품 Chain이 지구화로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상품들은 생산주체면에서 볼 때 어느 특정 국가에도 소속될 수 없게 되었다.

지구화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먹는 음식, 입는 것, 의약품, 생활용품, 교통수단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달러만 있으면 해결된다. 달러가 없는 한 지역자급체제가 무너진 오늘의 현실에서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시민 모두가 하나의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소비생활양식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사회에서의 소비양식보다 지구환경에 미치는 환경부하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구화와 더불어 지방화의 중요성이 논의되는 이유가 지구화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발상으로 이해한다.

지구화한 환경문제의 개선은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지구시민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환경문제가 아무리 거창하고 복잡해도 개개인이 선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데서 <Think Globally, Plan Regionally, Act Locally!>란 구호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Sustainable Consumption은 덜 만들어서 덜 쓰고 덜 버리는 소비에서 가능하다. 자기의 소비수준을 감축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

이번 Workshop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연대를 통해 이 Region에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이 만들어져서 국제적으로 교착되어있는 UN의 Agenda 21의 Chapter 4에 명시되어있는 생산과 소비양식의 변화를 가져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